

열린마당

청렴 감수성이란?



고 병 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한 청렴 교육강사가 청렴 감수성이 무엇인지 정의한 네 가지 내용을 인용해 이 글을 적어본다.

첫째, 공직자의 지위와 직책으로부터 생겨나는 영향력 지각하기. 공직자의 영향력은 조직과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공직자의 행동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상상하기. 공직자의 손짓, 발짓 하나도 영향력으로 작용돼 많은 사람들의 이해충돌로 연결된다. 공직자가 생각 없이 언급한 사람, 업

체, 물건이 그 영향력으로 선택과 배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이해충돌 인식하기. 사랑하는 가족, 동문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단체 등도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공직자인 내 존재로 생길 이익과 불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해충돌 방지하기. 자신의 영향력의 범위와 이해충돌을 인식해 그 안에서 불공정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방지한다. 예컨대 조선시대 홍주목사 ‘유의’는 조정 고관대작들이 보낸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조정의 공문으로 보내면 되는데 사사로이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청렴 감수성이 있는 공직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지각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상상하며 이해충돌을 인식·방지한다. 청렴 감수성은 공직자의 생명과도 같다.

불행의 씨앗 음주운전,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홍 기 철
제주해안경비단 1경비대

제주지역 음주운전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2499건, 2023년 2680건, 2024년 2540건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2022년 1062건 (42.5%), 2023년 1183건 (44.1%), 2024년 1073건 (42.2%)로 집계됐다. 과반수가 음주운전 전력자임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문화에 대한 과거 우리 사회의 ‘범죄성 인식의 관대함’도 음주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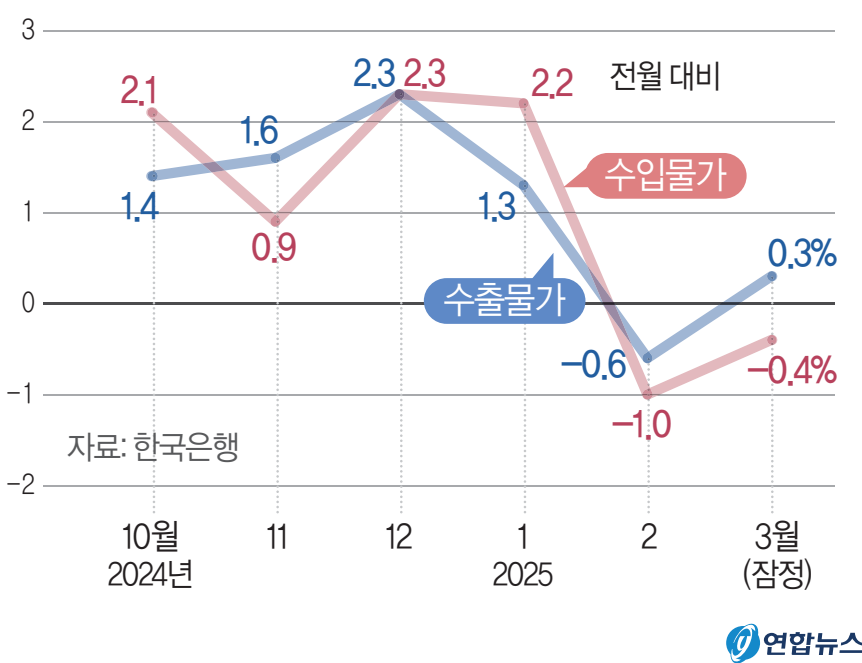
하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차를 놓고 가야 한다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음주운전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타는 등에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아서’, ‘대리운전이 오지 않아서’, ‘집과 가까운 거리여서’ 등의 변명들로 운전대를 잡는 시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과 행복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이자 살인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음주운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그래픽 뉴스

수출입물가 추이



열린마당

전동가위,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



고 진 혁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농업과 원예, 산업현장에서 전동가위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작업자의 손가락 절단, 열상, 신경 손상 등 중대한 부상이 다수 발생한다.

전동가위는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지만 고속 회전이나 절단 기능이 포함된 기계인 만큼 한 순간의 부주의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동가위 사고 발생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고 예방 기본 수칙을 잘 숙지해야 한다.

첫째, 전동가위 사용 전 반드시 기기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사용 중에는 두꺼운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작업 공간을 확보한다.

셋째, 작업 중 기계를 잡지 멈출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며, 보관 시에는 배터리를 분리한다.

넷째, 사용 전 충분한 제품 교육을 받고 고령자나 미숙련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나 숙련자와 함께 작업한다.

전동가위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안전이라는 전제가 지켜질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 위와 같이 전동가위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에 관한 관심을 두고 숙지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민선 8기 도정 전시·퍼포먼스에 과몰입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관 주도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도 3년 새 100억 가까이 늘었다. 지방 재정 여건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 운영비가 쓰이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은 그제 제주도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 주도 자체 행사 운영비 급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행사 운영비는 297억 600만원이다.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2022년 200억 8700만원에서 이듬해 241억 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4년엔 204억 1700만원이었다. 결국 2022년 대비 올해 증가 폭은 47.9%에 달했다.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도 벌어졌

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사용 관 주도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도 3년 새 100억 가까이 늘었다. 지방 재정 여건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 운영비가 쓰이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시행정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오죽하면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을 덜 쓰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겠는가. 아무리 도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시의성과 적절성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도정이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해바라기센터 공금횡령 발본색원하라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경찰이 근무하는 곳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해바라기센터 관계자 A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센터측이 직원들의 보험료가 정상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수사가 착수됐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경찰청, 운영기관이 협업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는 여가부, 제주도, 제주경찰청, 한라병원 4자 협약을 통해 한라병원 원이 위탁을 맡고 있다. 센터에는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5명은 제주경찰청에서 파견

된 여성 경찰관들로 수사와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사건의 발단은 직원들의 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된 사실을 센터측이 확인하면서다. 문제 발생 시 보고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센터측은 도청에 보고했고, 도청은 경찰에 신고토록 조치했다. 한라병원 측에는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횡령 금액과 기간 등 경위가 밝혀지겠지만 공공기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 믿기지 않는다. 보험료장기 체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석연치 않다. 센터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청은 뭘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부 고

김영조(교보리얼코(주)) 아버지 김해김공덕연(향년 87세)께서 서거 2025년 4월 16일 17시 1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5년 4월 18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5년 4월 19일(토요일)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 ▶장 지: 아흔아홉골 선영

배우자 김희자

아들 김영조 며느리 나채유

영수 오지은

영찬 고은경

※ 연락처 : 김영조 010-7737-2583
김영수 010-3489-3582
김영찬 010-8080-2924
나채유 010-5858-2583
오지은 010-7770-3582
고은경 010-3946-9160

부 고

문성규(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 연합회장·한국유형음식업중앙회 회장) 어머니 제주 고씨 흥옥(향년 94세)께서 서거 2025년 4월 17일 10시 6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 ▶일 포: 2025년 4월 19일(토요일)
- ▶발인일시: 2025년 4월 20일(일요일)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 ▶장 지: 양지공원→호국원

아들 문성규

며느리 김영자

성일

사위 이순현

딸 문혜숙

김정화

경자

허영운

경희

위창호

성임

최정훈

희연

장손 문호남

※ 연락처 : 문성규 010-3693-5083
문호남 010-6677-1479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방, 변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한,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 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모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지(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3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가족모지 문중모지 허가대행

벌초대행 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 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